

“
 끝까지 탐구할 수 있는 정신이
 위대한 것이고
 그것이 성공의 바탕이야.
 그림을 그렸으면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해 봐야 한다.
 - 이응노 -
 ”



이응노(한국/1904~1989) 구성(전에 채색/145×230cm/1971년)

교과서 **물려주기** 기록표

연도	교과서 사용자				상태
	학년	반	번호	이름	

※ 상태 표기 예시: 매우 좋음 | 좋음 | 보통 | 나쁨



차례

이 교과서에는요!
 의미 있는 미적 체험을 제시합니다.
 수준 높은 작품 감상을 지원합니다.
 즐거운 표현 활동으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는 미술 학습을 삶의 문제 해결로
 연결합니다.



미적 체험

I 나를 둘러싼 세계

01 나와 세계 2

02 나의 꿈을 그리다 10

- 경계를 넘나드는 예술가들 14

03 우리가 그리는 초록 미래 16

II 미술 그 너머

04 주변을 둘러봐, 우리를 둘러싼 이미지들 26

- 축제, 어디까지 가 봤니? 34
- 우리나라에서 만나는 세계 문화 35

05 경계를 넘어선 미술 36

06 미술과 테크놀로지의 만남 42

감상

III 미술 작품 읽기

07 눈에서 마음으로 48

08 보이는 것 너머로 52

09 가자! 미술관으로 58

IV 미술의 맥

- 세계 미술 문화 한눈에 보기 64

10 한국 미술의 숨결 66

11 동양 미술의 여정 74

12 서양 미술의 모험 80

- 21세기 미술, 현재에 미래를 품다 88

부록과 출처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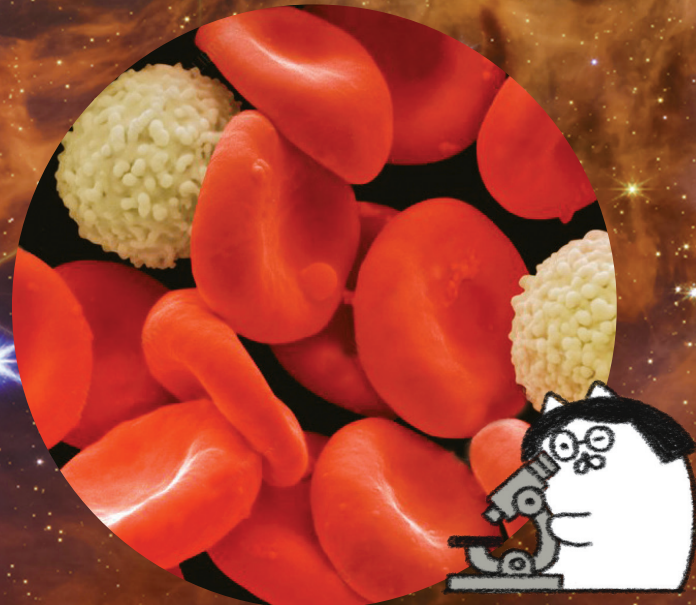
01

나와 세계

- 1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주변 대상과 현상을 지각할 수 있다.
- 2 미적 감수성을 발휘하여 대상을 관찰하고 탐색하며 나아가 그 가치를 찾을 수 있다.
- 3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 환경, 타인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다.



▲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촬영한 우주
미국 항공 우주국(NASA)이 2022년에 배포한 사진이다.
천문을 관측하는 용도로 설계된 제임스 웹 망원경으로
우주의 한 부분을 포착하였다.



▲ 현미경으로 관찰한 백혈구의 모습

시야를 넓히는 도구를 활용하여 멀리 있는 풍경이나
거대한 우주의 모습뿐만 아니라 미생물과 바이러스 등
사람의 눈으로 지각할 수 없는 대상을 볼 수 있다.

“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세상을 지각한다.
보기, 냄새 맡기, 듣기,
느끼기, 그리고 때로는
도구를 이용하기!
”



▲ 제주 성산일출봉(대한민국)



▲ 앤털로프 캐니언(Antelope Canyon, 미국)

아름다움을 찾아서!

미술 활동은 주변 환경을 열린 마음으로 바라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경험에서 시작한다.
나를 둘러싼 자연환경이나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대상을 관찰하고 그 속에서 아름다움
을 찾아보자.

▼ 사바(Sahba, Fariborz/캐나다/1948~) 연꽃 사원(인도/건축
물/1986년) 깨달음과 순수를 상징하는 연꽃 모양으로 지은 종교
건축물이다. 위에서 내려다 본 사원의 모습은 연꽃과 닮도록 건축
하였다.



▲ 라이트(Wright, Frank Lloyd/미국/1867~1959) 구겐하임 미술
관(뉴욕/건축물/1959년)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나선 형태를 건
축물에 응용하여 제작하였다. 아래에서 올려다 본 구겐하임 미술
관의 천장 또한 나선의 형태를 띤다.





온몸으로 느끼는 세상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은 세계를 접하는 직접적 창구이다. 우리는 여러 감각을 이용해 대상을 동시에 지각하며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인지한다. 감각을 열고 주변 대상을 오롯이 느껴 보자.

조약돌은 매끌매끌,
나무는 거칠거칠,
나뭇잎은...



▲ 감각에 집중하여 주변 사물을 탐색해 보자. 매끄러운 조약돌, 거친 나무껍질, 나뭇잎의 까끌까끌한 잎맥을 만질 때 어떤 감각이 느껴지는가?



▲ 라이프(Laib, Wolfgang/독일/1950~) 헤이즐넛 꽃가루(설치 작품/가변 크기/2021년) 꽃가루를 채취한 뒤 이를 전시장 바닥에 체로 쳐서 작품을 연출하였다. 꽃가루의 색채와 향기를 전시장에서 느낄 수 있다.



▲ 이명호(한국/1975~) 나무 #2(사진/128×108cm/2007년) 나무 뒤에 흰색 천을 두고 사진을 촬영하여 나무에 시선을 집중시킨다.

집중하여 관찰하기

한 가지 대상에 집중하여 자세히 관찰하면 주변에 있는 것이 사라지고 지각하는 대상만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관심이 가는 대상을 자세히 관찰하며 대상이 지닌 특성을 면밀히 들여다보자.



무심코 지나쳤던 것을
자세히 관찰하니
새롭게 보이네!



확장되는 환경

환경은 우리를 둘러싼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상황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다. 환경이 지닌 조건에 따라 감각하고 지각하는 대상이 달라지며 인식과 사고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인간은 과거에 주로 자연환경에 둘러싸여 살아왔지만 현대에 들어서며 대부분 인공 환경으로 이루어진 세상에서 생활한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게 될까?



▲ 영화 투모로우랜드(2015년)의 한 장면

◀ 팀랩(teamLab/국제 예술 집단) 꽃과 사람, 제어할 수 없지만 함께 살다(인터랙티브 디지털 설치/가변 크기/2020~2021년) 기술을 활용하여 환경에서 느끼는 감각을 체험할 수 있다. 미디어 아트는 각종 영상과 공간을 바탕으로 감각이 느껴지는 신비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우리는 미디어로 연출한 공간을 거닐면서 움직임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는 등 색다른 환경을 경험한다.



표현 활동

감각을 회화로 표현하기

표현 재료

노트, 펜, 채색 도구

1 내가 느꼈던 여러 가지 강렬한 감각을 적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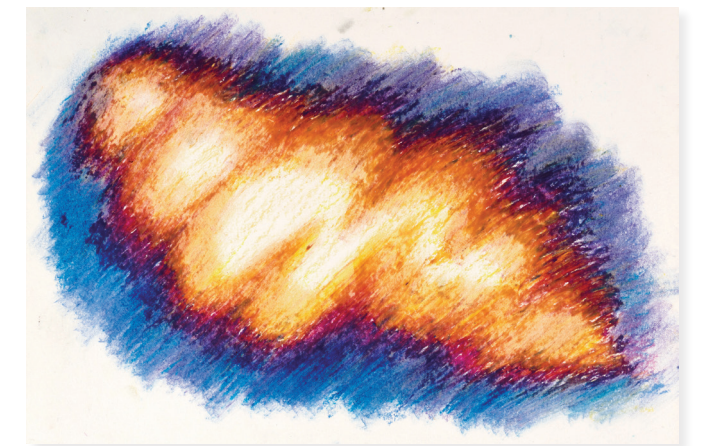
2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감각을 골라 다양하게 표현해 본다.



3 그림을 함께 감상하며 어떤 감각을 그렸는지 친구와 맞춰 보고, 어떻게 표현했는지 설명한다.



◀ 한지호(학생 작품) 바다의 변화(오일 파스텔/21×29.7cm) 가족과 함께 떠난 휴가에서 느낀 파도의 온도와 촉감을 푸른색과 녹색의 줄무늬 형태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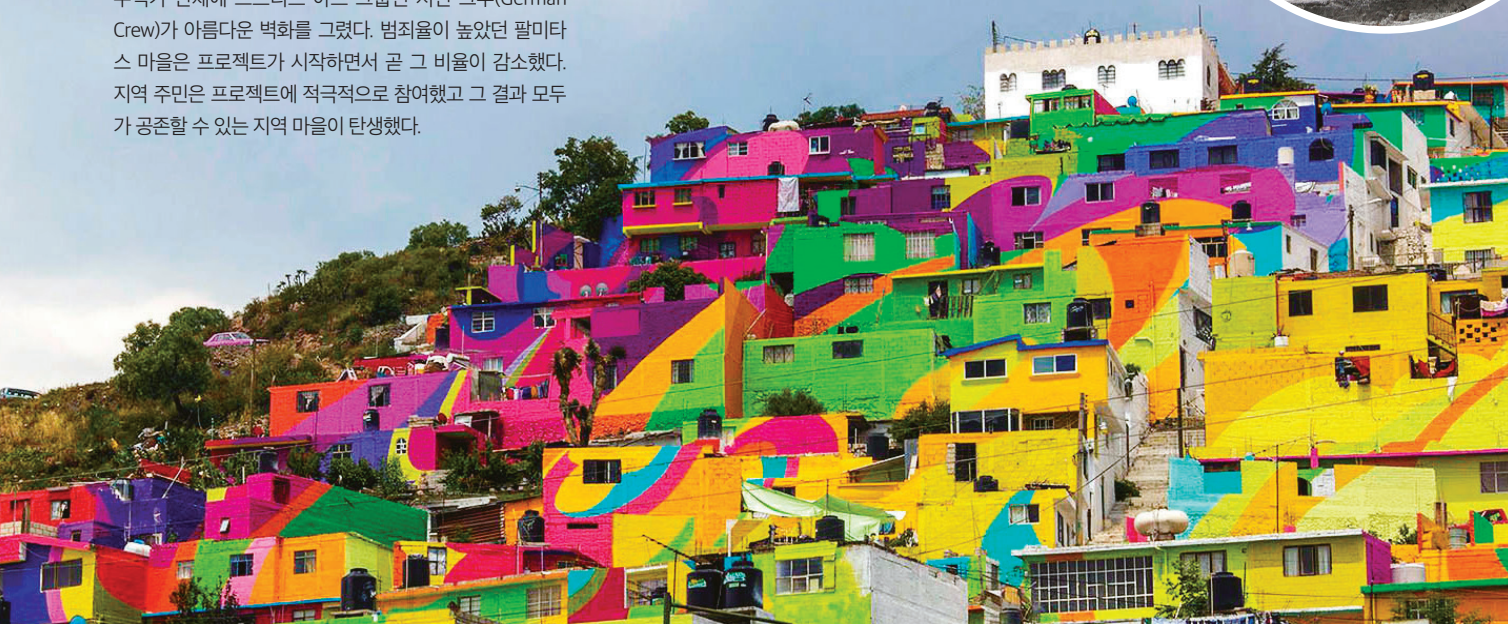


▲ 최광은(학생 작품) 무제(오일 파스텔/21×29.7cm) 사탕 안에 들어 있는 시럽을 먹을 때의 미각과 촉감을 푸른 색감과 붉고 노란 색감으로 대조하고 부드러운 형태의 덩어리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공동체의 일부인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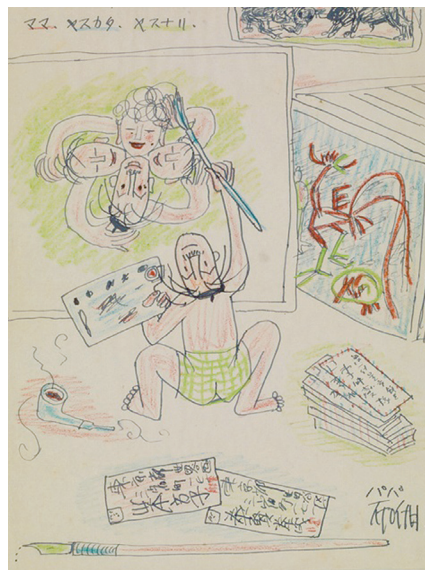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가족, 학교, 사회, 국가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내 생각을 전달하고 공감하는 수단으로 글과 말을 주로 사용하지만, 때로는 시각 이미지로 글과 말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저먼 크루(German Crew) 파추카 페인트 잇셀프 프로젝트
(멕시코/2014~2015년) 멕시코 파추카시에 있는 팔미타스 주택가 전체에 스트리트 아트 그룹인 저먼 크루(German Crew)가 아름다운 벽화를 그렸다. 범죄율이 높았던 팔미타스 마을은 프로젝트가 시작하면서 곧 그 비율이 감소했다. 지역 주민은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역 마을이 탄생했다.



▲ 강애희, 하보미, 우진, 여애양(학생 작품)
추모의 바다(캔버스에 아크릴/40×40cm)

▶ 백남준(한국→미국/1932~2006) **굿모닝 미스터 오웰**(비디오/60분/1984년/2014년 백남준아트센터 전시 장면) 1984년 1월 1일, 백남준은 당대의 예술가, 팝 가수들이 워싱턴으로 만나 함께 공연하도록 기획했다. 뉴욕의 WNET 텔레비전 스튜디오와 파리의 퐁피두센터를 워싱턴으로 연결했고 한국, 일본, 독일 등에 공연을 생중계했다. 전 세계 시청자 수는 약 2,500만 명으로 추산되었다. 당시 공연을 2014년에 전시한 백남준아트센터의 모습이다.



함께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감 능력이 아닐까?



◀ 이중섭(한국/1916~1956) **화가와 가족**(종이에 펜, 크레용/26.4×20cm/1954년) 턱을 맞던 네 명의 가족을 그리는 화가의 모습은 멀리 떨어져 지내는 그들을 그리워한 이중섭의 마음을 잘 나타낸다.



표현 활동

친숙한 공간을 새롭게 들여다보기

표현 재료

시트지, 마스킹 테이프, 카메라

- 1 주변 공간을 둘러보고 인상 깊은 장소나 나에게 중요한 공간을 탐색하여 사진을 촬영한다.
- 2 공간을 새롭게 재해석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촬영한 사진에 특정한 주제나 재미있는 패턴을 그려 공간 재해석 아이디어를 구체화한다.



- 3 색 시트지와 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공간을 꾸민다.



- 4 친구들의 작품과 내 작품을 비교하며 각자가 학교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재해석하였는지 의견을 들어 본다.



▲ 김우솔, 이성민, 김민준, 이지은(학생 작품)
스파이더맨의 흔적(테이프, 시트지/가변 크기)



◀ 김민서, 김혜리(학생 작품) 소방관의 하루(테이프, 시트지/가변 크기)

- 5 유한준, 한지호, 전승민(학생 작품) 물결(시트지가변 크기)



단원 점검하기

- 주변 대상과 현상을 여러 감각을 활용하여 지각할 수 있는가?
- 대상을 관찰하고 탐색하여 그 미적 가치를 새롭게 창작 활동에 표현할 수 있는가?
- 자신을 성찰하고 주변 환경, 타인과의 관계를 고찰할 수 있는가?

꽃을 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어디에나
꽃이 피어 있다.
-마티스-

미술은 여러 분야와 융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확장된 미술 분야가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는지 알아보고 그 영향력을 헤아려 보자.

▶ 쿠오리 프로젝트 - 폐기물로 생분해성 대체 소재를 개발하다

스위스의 바젤디자인예술대학교의 사라 하버스를 중심으로 시작된 쿠오리 프로젝트는 유기 폐기물의 업사이클링을 목표로 새로운 재료를 연구한다. 쿠오리는 바나나 껍질의 폐기량에 주목하여 바나나 껍질을 이용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개발하였다. 2021년 고분자 공학 연구소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현재는 신발 밑창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폐기되는 바나나 껍질을 활용하여 기존 플라스틱 밑창이 배출하는 미세 플라스틱을 줄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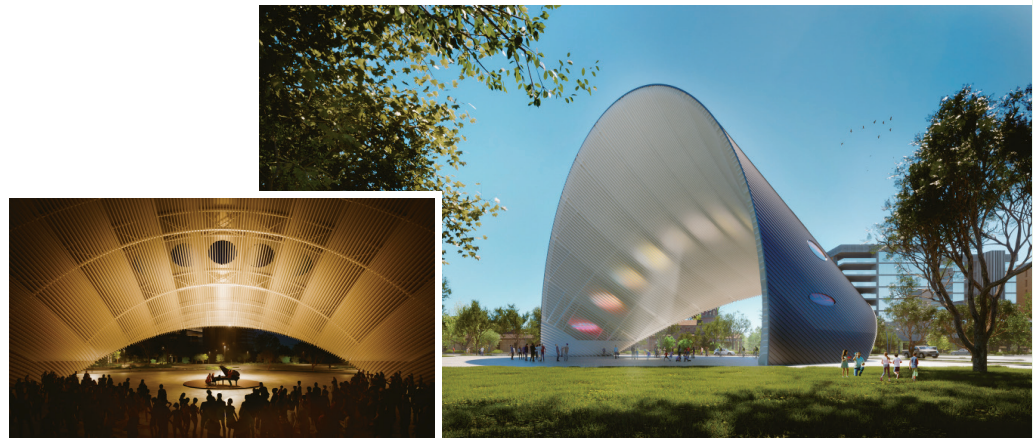


▲ 쿠오리 프로젝트(KUORI Project/2021~) 바나나 껍질을 이용하여 개발한 생분해성 플라스틱 깔창



▶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공 미술

해시계를 모티브로 제작한 이 작품은 그들이 있는 야외 공간에서 시간마다 변화하는 조명 디스플레이를 감상할 수 있다. 만남과 휴식, 공연 감상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지역 사회의 태양광 시설로 매년 40만 kWh를 생산할 수 있으며, 작품이 설치되어 있는 동안 1,200만 kWh 이상의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 마리아노(Mariano, Riccardo/이탈리아/1985~) 시간의 아치(설계 예상 모델링/좌)내부 모습, (우)외부 모습/2019년

▶ 빙하의 변화를 사진과 영상으로 시각화하다

2007년 벨로그는 예술과 과학을 통합하여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대중의 인식과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연구 단체를 설립하였다.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인 벨로그는 이 단체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남극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 등 빙하 지역의 변화 과정을 사진과 비디오 작업으로 기록하였다. 그 작업을 바탕으로 전시회에 참여하고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며 전세계 사람들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린다.



▲ 빙하 영상 제작을 위해 가파른 빙산에 올라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는 벨로그의 모습



▲ 벨로그(Balog, James/미국/1952~) 우마나크 피오르드(크로모제닉 프린트/84x127cm/2007년)

01 나와 세계

▶ 자연미와 인공미

- 자연미: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서 지형 조건, 다양한 생물 등 인간과 함께 자연적으로 공존하는 아름다움이다.
- 인공미: 인간의 필요에 따라 가공된 것이 지닌 아름다움을 인공미라고 한다.

▶ 자연환경과 인공 환경

- 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은 인공 환경으로 급속하게 변화하였으며, 이는 우리 삶의 방식에 폭넓은 영향을 미쳤다.

▶ 다양한 감각과 지각

- 우리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같은 다양한 감각으로 세상을 지각한다. 이 같은 감각을 이용해 주변 세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미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

공감각

공감각은 한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말한다. ‘푸른 종소리’와 같이 소리에 색깔을 부여한 문학 표현이나 음악의 운율을 기하학적 선과 형태로 표현한 칸딘스키의 그림 등이 공감각을 잘 구현한 예이다.



▲ 칸딘스키(Kandinsky, Wassily/러시아→프랑스/1866~1944) 검은 아치가 있는 그림(유화/189x198cm/1912년)

사회 참여 미술

사회 현상에 참여하고 사회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고자 하는 미술이다.



▲ 루빈(Rubin, Jon/미국/1963~) 콘플릭트 키친(Conflict Kitchen/상업 레스토랑/2010~2017년) 미국 피츠버그에 있는 비영리 테이크 아웃 레스토랑이자 미술 프로젝트이다. 미국과 분쟁 중인 국가의 요리를 6개월 한정으로 제공하였다. 사진은 북한 요리를 제공하던 시기에 촬영한 것이다.

02 나의 꿈을 그리다

▶ 다양한 미술 직업

순수 미술	화가, 조각가, 공예가, 행위 예술가, 도예가, 사진작가 등
미술 교육, 연구	미술 교사, 대학교수, 미술 평론가, 미술 사학자, 저작권 관리자 등
미술 전시	큐레이터(학예사), 도슨트, 미술 경매사, 문화유산 복원사, 미술관 관장 등
디자인	시각 디자이너, 제품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광고 디자이너, 웹 디자이너 등
게임, 만화, 애니메이션	만화가,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애니메이션 기획자 등
영상, 무대 공연	영화감독, 미술 감독, 무대 미술가, 특수 효과 기술자 등

▶ 미술 직업인과의 인터뷰 과정

- 직업인 탐색과 선정: 인터뷰하고 싶은 미술 직업인을 탐색하고 선정하여 인터뷰 일정을 조정한다.
- 인터뷰 사전 자료 조사: 대상 인물을 조사하면서 어떻게 질문을 구성할 것인지 논의하고 질문을 만든다.
- 인터뷰 진행: 대상 인물을 만나 사전에 준비한 질문을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 활동 마무리: 인터뷰를 하고 난 뒤 알게 된 인물의 생각과 아이디어, 자신의 소감 등을 정리한다.

03 우리가 그리는 초록 미래

• 대지 미술: 암석, 토양, 눈 등 자연을 활용하여 작품을 제작하는 미술 양식이다.



▲ 아마르사이한 남스라이자브(Amarsaikhan Namsrajav/몽골) 땅의 소리(대나무/380x650x320cm/2022년)

- 생태 미술: 생태계를 보존하고 생태 시스템을 재생, 복원하려는 예술 양식이다.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시한다.
- 생태 건축: 건축과 생태계의 상호 관계를 중시하며 자원 소비를 줄이고 생태계 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건축이다.

04 주변을 둘러봐, 우리를 둘러싼 이미지들

▶ 다양한 시각 언어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공유하기 위해 시각 언어를 공공 언어로 사용한다. 메시지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시각화된 이미지를 소통의 매개, 즉 언어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 기호: 어떤 뜻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 문자, 표지
- 상징: 추상적 개념이나 관념을 구체적 사물이나 이미지로 나타낸 것
- 이미지: 말이나 글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며,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의미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한다.



▲ 독일 베를린의 쇠네펠트 공항에 있는 안내 표지판이다. 전 세계의 공항 이용객에게 시각 언어로 위치를 알려 준다.

▶ 시각 언어 읽고 해석하기

- 비주얼 리터러시(Visual Literacy): 시각적 문해력을 뜻한다. 문자를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미지도 읽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용어를 사용한다.

어두운 공간에 LED 사인으로 된 영문과 국문 문자가 나타난다. 이해하기 쉬운 간결한 경구도 있지만 어떤 메시지인지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 또한 있다. 관객들이 집중력을 발휘해 문장을 다시 읽고, 어떤 의미인지 고민하도록 작가는 애써 자연스러운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았다.



▲ 홀저(Holzer, Jenny/미국/1950~)
It's crucial to have an active fantasy life
(LED 설치 작품/가변 크기)

-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매체 문해력을 뜻한다. 각종 시각 이미지, 영화, 텔레비전, 영상 등 현대 사회의 지배적인 정보 전달 매체가 일상생활과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러한 매체를 읽고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해졌다.

영화 트루먼 쇼에 숨은 메시지

영화 트루먼 쇼(1988년)는 주인공 트루먼의 완벽하게 짜인 각본과 같은 삶을 보여 주지만, 사실은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된 우리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한다. 흥미로운 콘텐츠를 위해 사생활과 인권이 침해되는 오늘날의 모습을 은유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트루먼 쇼의 한 장면이다. 주인공 트루먼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평생을 살아온 세트장을 떠나고 있다.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디지털 문해력을 뜻한다. 인터넷, 스마트폰, 소셜 미디어, 빅 데이터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도구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 공공 미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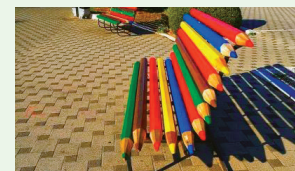
대중을 위한 미술이다. 도시의 공원에 있는 환경 조각이나 벽화, 모든 사람의 편의를 위한 설치물 등이 해당한다.

- 스트리트 퍼니처: 공원이나 광장 등에 설치되는 벤치, 버스 정류장, 가로등과 같은 환경 조형물이다.
- 환경 조각: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도록 도시의 거리나 광장 또는 공원 등에 설치하는 조각이다.
- 벽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하거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외 벽면에 그린 그림이다.
- 슈퍼그래픽: 옥외 공간이나 건물의 외벽을 장식하는 거대 규모의 그래픽 이미지이다.
- 미디어 파사드: 건물의 외벽을 스크린처럼 사용하여 구현하는 대형 미디어 아트이다.

<환경 조각>



<스트리트 퍼니처>



05 경계를 넘어선 미술

▶ 미술과 수학

- 지오데식 돔: 폴리가 고안한 건축 공법으로 만든 반구형 또는 바닥이 일부 잘린 구형의 건축물이다. 건축, 가구, 생활용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 폴리의 얼굴이 사용된 기념우표

- 테셀레이션: 일정한 형태의 도형으로 평면을 빈틈없이 채우는 기법이다. 도형의 평행 이동, 회전 이동, 대칭 이동을 활용한다. 쪽매 맞춤, 쪽매붙임, 타일링이라고도 한다.

이셔와 알람브라 궁전의 대칭 무늬

이셔는 알람브라 궁전의 화려하면서도 기하학적, 규칙적, 대칭적인 벽면 문양에서 영감을 받아 기하학적 무늬에 수학 요소를 넣어 독특한 작품을 만들어 냈다.



- 황금비: 고대 그리스인은 전체와 부분 혹은 부분과 부분의 비율이 1.618:1일 때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이라고 여겼다.

피보나치수열

1202년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치가 『산반서(Liber Abaci)』에서 다룬 수열이다. 1, 1, 2, 3, 5, 8 ... 과 같이 처음 두 항을 1과 1로 한 뒤에 다음 항은 앞의 두 항의 합으로 만든다. 조개껍데기의 곡선, 솔방울 비늘의 배열 등 규칙성과 안정감을 주는 자연물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 미술과 과학

• 미술과 광학

- 카메라 옵스큐라: 빛의 굴절을 활용한 '어두운 방'이라는 뜻의 장치이다. 외벽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빛이 들어오고 반대쪽 하얀 벽이나 막에 외부 정경이 거꾸로 맺힌다.

- 레이오그램: 직접 광량 재료에 물체를 얹고 빛을 쬐어 만들어지는 명암을 이용하여 추상 사진을 만드는 기법이다.
- 홀로그램: 두 가지 이상의 빛이 만날 때 발생하는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하여 영상이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구현하는 기술이다.

• 미술과 화학

- 도자기의 산화 번조와 환원 번조

산화 번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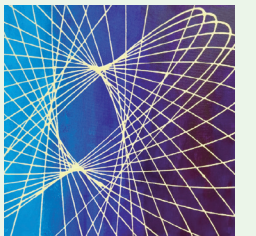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며 완전 연소 상태로 도자기를 굽는 방법이다. 산화 번조로 구워낸 청자는 황색이나 갈색, 적색을 띤다.

환원 번조

산소 공급을 막아 불완전 연소 상태로 도자기를 굽는 방법이다. 환원 번조로 구워낸 청자는 푸른빛을 띤다.

• 미술과 물리학

- 펜듈럼 페인팅: 물체가 일정한 주기로 움직이는 진자 운동을 이용하여 일정한 간격과 방향으로 기하학적인 선을 그리는 페인팅 기법이다.



▶ 안민우(학생 작품)
무제(캔버스에 아크릴/50×50cm)

06 미술과 테크놀로지의 만남

-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 컴퓨터로 만든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게 하는 최첨단 기술이다.



▲ 고정형 헤드셋(HMD: Head Mounted Display)을 착용하고 가상 현실을 체험하는 모습

-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 현실 세계의 이미지나 배경에 가상의 이미지나 정보를 추가하여 보여 주는 기술이다.



▲ 증강 현실을 잘 표현한 영화 아이언 맨의 한 장면

-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의 학습하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말하는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이다.



▲ 버추얼 아이돌 그룹 '메이브(MAVE)'의 공중파 음악방송 데뷔 무대의 한 장면

08

보이는 것 너머로

- 1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 2 작품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여 나만의 작품을 표현할 수 있다.



▲ 리히터(Richter, Gerhard/독일/1932~) **베티**(캔버스에 유채/101.9×59.4cm/198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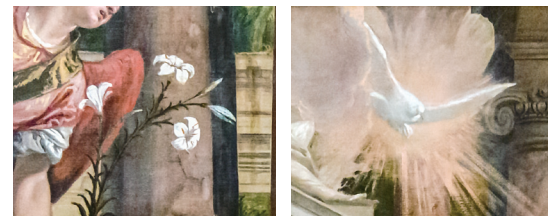
“ 작가는 왜 소녀의 뒷모습을 그렸을까? 작가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의 의미 해석하기

미술 작품에는 다양한 삶과 문화가 스며들어 있다. 다양한 문화권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보이지 않는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미술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알아보자.

상징으로 작품 해석하기

작품의 소재로 쓰인 대상(도상)이 상징하는 의미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 베로네세(Veronese, Paolo/이탈리아/1528~1588) **수태 고지**(캔버스에 유채/279×551cm/1578년) 성서 누가복음에는 천사 가브리엘이 홀로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음을 알리는 수태 고지 장면이 나온다. 종교화는 전통적 규범에 따라 비슷한 도상이 자주 등장한다. 성령의 상징인 빛과 비둘기,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을 든 천사의 모습 등이 그 예이다. 오랜 시간 전해져 오는 도상의 의미를 알면 작품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대상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작품에서 꽃과 비둘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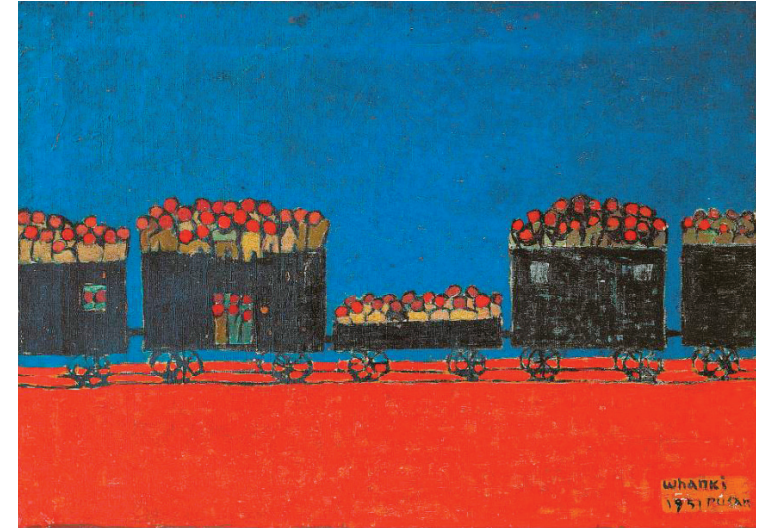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작품 해석하기

미술 작품이 제작된 시대의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작품을 해석한다.

제작 당시 사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소재로 한 건 아닐까요?



▲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당시 군인이었던 사진대 대장 임인식(한국/1920~1998)은 열차를 타고 피란을 떠나는 사람들의 모습을 촬영했다.



▲ 김환기(한국/1913~1974) **피란 열차**(캔버스에 유채/37×53cm/1951년)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일어나자 수없이 많은 피란민 행렬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졌다. 객차에 들어가지 못해 지붕으로 올라간 사람, 화물을 싣는 자리까지 뺨뺨하게 찬 사람들이 보인다. 작가가 직접 겪은 전쟁의 참상을 표정 없는 얼굴과 단순한 구성으로 담담하게 표현했다.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기

작가의 삶과 작품 세계를 중심으로 작품을 해석한다.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요? 작가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 마티스(Matisse, Henri/프랑스/1869~1954) **다발**(종이에 구아슈로 채색된 종이/293×350cm/1953년) 작가의 인생 마지막 시기에 색칠한 종이를 가위로 오려서 제작한 작품이다. 마티스는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은 꼭 그림을 그릴 정도로 성실한 화가였다. 말년에 찾아온 지독한 건강 악화로 더 이상 붓을 잡지 못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는 새로운 그리기 방식을 찾아 그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나갔다.

형식·양식으로 작품 해석하기

작품의 표현 기법이나 양식의 특징에 주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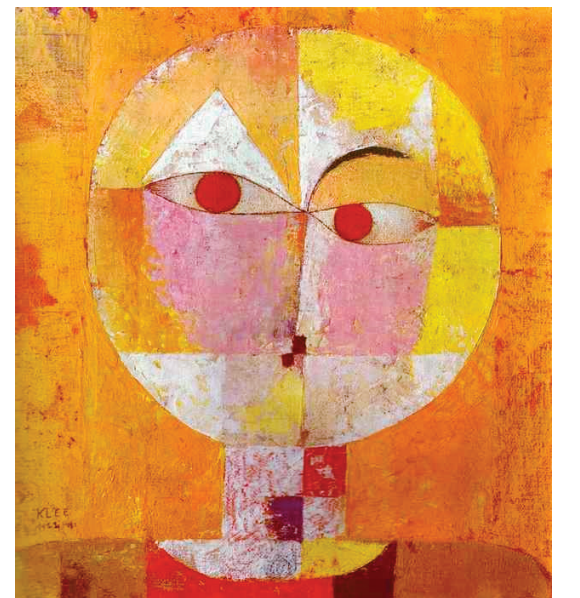
인물을 어떤 방식으로 표현했지?

작품의 크기는?

작가는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



▶ 클레(Klee, Paul/스위스/1879~1940) **세네치오**(판지 위 거즈에 유채/40.3×37.4cm/1922년) 정사각형 캔버스에 둥근 얼굴, 빨간 눈동자, 오른쪽 검은 눈썹이 도드라진 인물을 소박하게 그렸다. 코, 입, 귀의 생김새는 과감하게 생략했다. 배경은 여러 차례 칠했지만 특별한 계획 없이 자유롭게 칠했으며 캔버스에 거즈를 발라 거친 질감을 표현했다. 작가는 입체주의,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다양한 예술에서 영향을 받아 화면에 형상을 단순하게 구성하여 순수하고 독창적인 효과를 얻고자 했다.



이야기를 품은 작품

인간은 오래전부터 그림으로 이야기를 전달해 왔다. 신화, 종교, 설화의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도상을 알면 작품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신화 속 인물의 이야기

우리는 신화 속 신들의 이야기와 그 모습을 담은 미술 작품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에로스의 금 화살을 맞은 아폴론과 납 화살을 맞은 다프네의 이야기는 여러 작가에게 소재로 활용되어 다양한 작품이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 푸생(Poussin, Nicolas/프랑스/1594~1665) 아폴론과 다프네
(캔버스에 유채/97×131cm/1627년)



◀ 베르니니, 조반니
(Bernini, Gian Lorenzo/
이탈리아/1598~1680)
아폴론과 다프네(대리
석/높이 243cm/1622~
1625년)

부처님의 손에 담긴 이야기

불상은 손 모양에 의미를 담아 불법을 전한다. 부처나 보살의 깨달음을 손 모양으로 표현한 것을 '수인'이라고 한다.



▲ 경주 불국사 금동 비로자나불 좌상(통일신라/높이 177cm/8세기)

◀ 서산 용현리 마애여래삼존상 중 일부(높이 280cm/7세기)

문자도 속 설화와 교훈

한자의 획 안에 다양한 도상을 놓아 구성한 그림을 문자도라고 한다. 도상은 한자의 의미와 관련한 설화와 교훈을 떠올리게 하는 이미지로 채워진다.



▶ 작가 미상(조선/미상) 효 문자도
(종이에 채색/58.5×29.5cm/미상) 잉어, 죽순, 부채, 거문고와 같은 상징이 문자의 획을 이루었다. 이 중 잉어를 보며 추운 겨울에 계모를 위해 강의 얼음을 깨 효자 이야기를 떠올릴 수 있다.

한겨울에 어머니께 잉어를 드시게 한 효자 이야기가 생각나.



화려한 꽃에 담긴 서로 다른 이야기

두 그림은 꽃을 표현 대상으로 삼았지만, 모란 병풍은 '부귀영화의 염원'을, 화병의 화려한 꽃다발은 '인생무상'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는 점에서 대조를 이룬다.



▲ 작가 미상(조선/미상) 모란도 병풍(비단에 채색/201×52cm씩 8폭/미상)

▶ 브뤼헐(자)(Bruegel, Pieter(the Younger)/네덜란드/1568~1625) 보석, 동전, 조개껍데기가 있는 꽃병(캔버스에 유채/65×45cm/1608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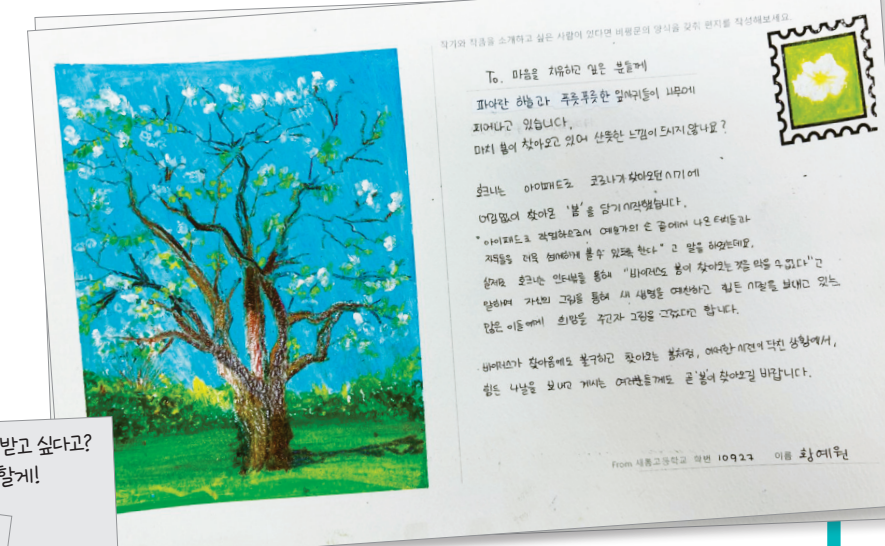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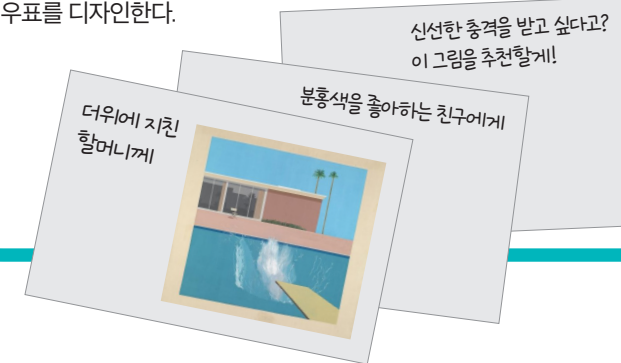
감상 활동

마음을 담은 감상 엽서 제작하기

표현 재료

A4 사이즈 도화지, 채색 재료, 필기도구

- 1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
- 2 작품을 추천하고 싶은 사람을 떠올리며 편지글 형식의 작품 소개 글을 쓴다.
- 3 내가 생각하는 작품의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편지 제목을 정한다.
- 4 엽서 왼쪽에 글 내용에 어울리는 삽화를 그린다.
- 5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조형 요소와 원리를 응용하여 우표를 디자인한다.



▲ 황예원(학생 작품) 마음을 치유하고 싶은 분들께 (21×29cm/종이에 오일 파스텔, 펜)



단원 점검하기

- 다양한 감상 관점과 방법을 활용하여 작품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가?
- 미술의 다원성을 존중하고 작품 감상 경험을 삶과 연결하여 새롭게 표현하였는가?

나는 보기 위해 눈을 감는다
-고갱-

09

가자! 미술관으로

- 1 미술관의 역할과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 2 학교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변화시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다.
- 3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다.

▼ 카텔란(Cattelan, Maurizio/이탈리아/1960~)
무제(플래티넘 실리콘, 예폭시 유리 섬유, 스테인리스강, 머리카락, 옷, 신발 등/가변 크기/2001년)

“ 나는 미술관을 재미있는 곳으로 만들고 싶어. 미술관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곳이야. 같이 가 볼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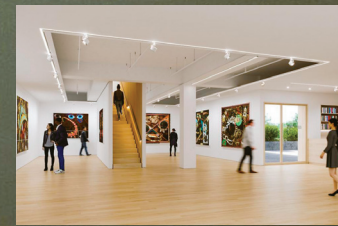
열린 공간에서 실물 작품을 감상하면 크기와 질감, 전시 공간과의 관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미술 작품을 만나러 가 보자!



▲ 비엔날레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 전시 행사. 동시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알 수 있다.



▲ 아트 페어
같은 장소에 다양한 상업 화랑(갤러리)이 모여 대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한다.



▲ 갤러리(화랑)
미술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곳. 작품의 가치를 홍보하고 미술 시장에 선보이는 역할을 한다.

미술관에 가면

미술관은 문화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각종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이다. 사회·문화·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작품과 만나기

작품 전시관에서는 관람객이 작품을 감상하면서 미적 체험을 할 수 있다. 감상을 돕기 위해 주제별로 공간과 동선을 구분하고, 다양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다.



AUDIO GUIDE

한국어 ENGLISH
이영남

▶ 오디오 가이드나 휴대 전화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작품 해설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 팸플릿을 참고하면 큐레이터의 의도뿐만 아니라 개별 작품과 작가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전시장 밖으로 이어지는 즐거움

전시를 관람한 뒤에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자. 강연이나 워크숍에 참가하고 아트숍 등 다양한 공간에 방문하여 감상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정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아.

▶ 전시 연계 프로그램
작가의 예술 세계, 창작 과정 등과 관련된 체험을 진행하며 다양한 측면에서 전시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이용노미술관 전시 연계 특별 교육 프로그램 '웰컴 투 PP'(2020년)

국립현대미술관 이종섭 특별전 어린이 전시 감상 가이드

▶ 아트숍, 도서관
미술 작품을 활용한 다양한 디자인 상품을 살펴보고 전시장에서의 경험을 떠올려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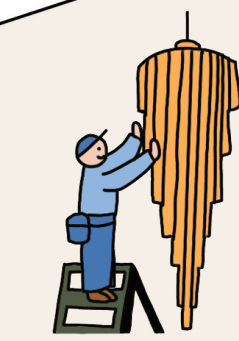
국립현대미술관 이진희 컬렉션 특별전 도록

보이지 않는 노력

미술관은 전시 작품 외에도 방대한 양의 소장품을 관리한다. 또 새로운 작품을 수집하고 연구하여 대중 앞에 선보이기 위해 여러 사람이 협업한다.



▲ 작품 연구, 전시 기획
큐레이터는 작품을 수집하고 소장품을 관리하고 연구한다. 전시의 유형과 규모를 정하는 등 전시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 전시 공간 디자인, 설치와 홍보
디자이너는 전시 공간을 디자인하고 설치 전문가와 협업하여 전시장을 완성한다. 또 포스터, 팸플릿, 도록 제작을 담당한다.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어린이, 청소년, 성인, 미술 전문가까지 연령이 다양하고 수준이 다른 관람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진행한다.



▲ 작품의 보존과 복원
소장품을 관리하고 훼손된 작품을 복원한다. 보존 과학자는 미술사와 재료를 이해하고 과학적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새로워지는 미술관

오늘날 미술관은 대중이 미술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개방과 소통을 지향한다. 또 첨단 기술을 활용한 대형 설치 작품이나 몰입형 전시로 색다른 예술 경험을 제공하는 등 미술관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다.

● 버려진 공간의 재탄생



▲ **뱅크사이드 발전소**
(영국/1990년대 초)

▲ **엘리아손**(Eliasson, Olafur/덴마크/1967~) **날씨 프로젝트**(2003년 영국 테이트 모던 전시 장면) 영국의 '테이트 모던'은 발전소를 미술관으로 재탄생시킨 공간이다. 그중 터빈 홀은 미술관의 중앙 홀이자 기획 전시를 하는 장소이다. 매년 예술가들의 실험 정신이 돋보이는 작품을 선보인다.

● 개방형 수장고



▲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한국/2022년) 국내 최초의 수장형 미술관이다. 특히 소장품을 보관하는 수장고에 관람객이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개방하여 작품 보존과 전시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알고 가기 만질 수 있는 전시

미술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안내 문구로는 '눈으로만 보세요', '만지지 마세요' 등이 있다. 작품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이지만 이러한 규칙 아래에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도 작품을 즐길 방법이 없었다. 이 같은 규칙의 한계를 넘어 작품을 직접 만지고 느끼면서 감상할 수 있는 전시로 시각 예술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는 국내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프라도 미술관에서는 시각 장애가 있는 관람객도 그림을 손끝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3차원 이미지와 점자로 된 글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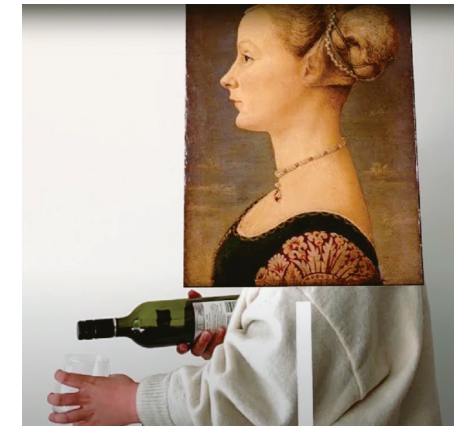
▶ **프라도 미술관**(에스파냐/2015년) 3차원 이미지를 손끝으로 감상하는 모습



미술 작품을 찾아 떠나는 온라인 여행

디지털 기술이 발달한 덕분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미술 작품을 감상하는 다양한 방법을 알아보고 작품 감상을 즐겨 보자.

● 증강 현실(AR: Augmented Reality)로 다가온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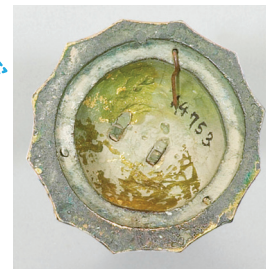


▲ **구글 아트 프로젝트**(Google Arts Projector) 증강 현실 기술로 원하는 공간에 실물 크기의 예술 작품을 놓아 볼 수 있다. 주변 배경과 작품의 상황을 적절하게 배치하면 재미있는 합성 사진을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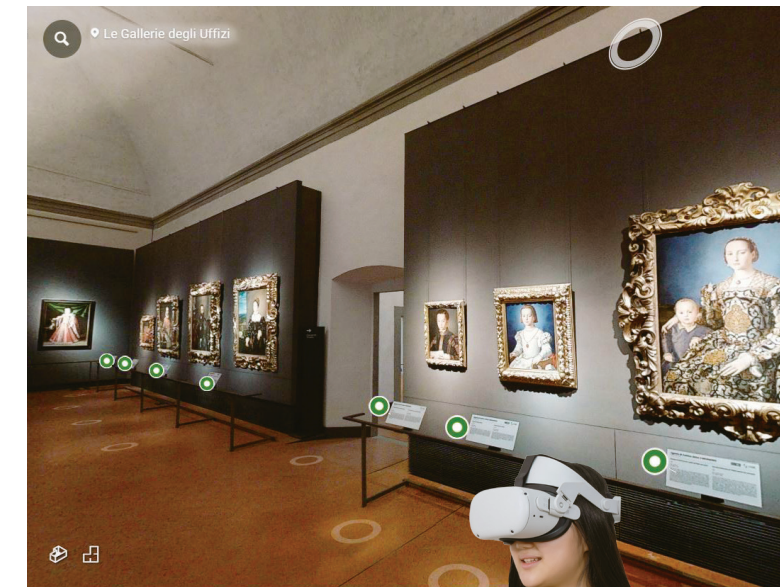
● 3차원으로 살펴보는 우리 문화유산



▲ **금제 여래 입상**(금/높이 14cm/6-7세기)을 다양한 방향에서 살펴보는 모습 국립중앙박물관 누리집에서는 불상의 모습을 다각도로 볼 수 있다. 사진만으로는 보기 힘든 뒷모습과 밑면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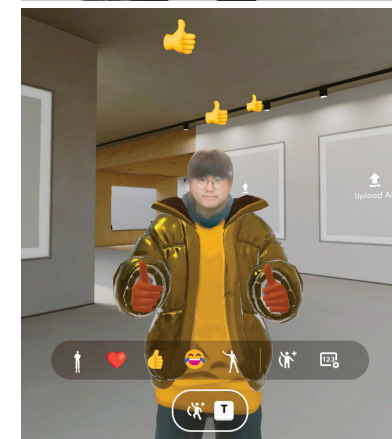
● 가상 현실(VR: Virtual Reality)로 즐기는 전시회



▲ **우피치 미술관 온라인 전시** 미술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전시이다. 전시실 공간을 돌아다니며 작품을 감상하고 VR 기기를 활용하여 더욱 실감나게 관람할 수 있다.



● 현실을 뛰어넘는 메타버스(metaverse) 전시회



▲ 현실을 초월한 새로운 가상 현실인 메타버스를 활용해 전시회를 열어 시간·물리적 제약 극복하고 전 세계 다양한 친구와 소통하면서 작품을 감상한다. 사진을 넣어 나와 닮은 아바타를 만들 수 있고 전혀 다른 아바타로 새롭게 태어날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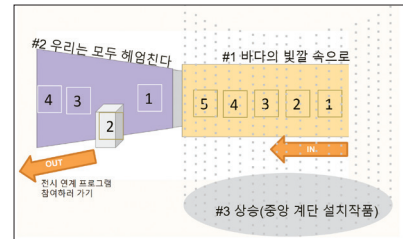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학교가 예술을 경험하는 전시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친구들과 함께 예술 전시 공간을 만들어 보자.

과정 1 특별한 의미를 담은 전시회 기획하기

STEP 1 > 학교 공간 탐색

모동원	김민선 외 4명
전시 제목	I SEA YOU
전시 주제	학교에서 바다를 느끼다
전시 장소	중앙 계단 앞 로비
기획 의도	일상에 지쳤을 때 바다를 찾는 것처럼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한 작품을 감상하고 시원한 해방감과 마음의 안정을 얻으면 좋겠다.
전시 구성	1관: 바다의 빛깔 속으로 2관: 우리는 모두 해엄친다 3관: 상승(중앙 계단 설치 작품)

STEP 2 > 전시 공간 디자인



STEP 3 > 설치와 홍보



- ▲ 전시의 주제와 장소, 전시할 작품 목록을 계획한다. 전시회에 참여한 관람자가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점을 예상해 본다.
- ▲ 관람자의 동선과 작품의 위치, 순서 등을 계획한다.
- ▲ 작품을 설치하고 전시회를 홍보한다.

과정 2 작품으로 들어가는 설치 작품 제작하기



- ▲ 설치 공간의 구상도를 그린다. 전시와 공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재료와 제작 방법을 꼼꼼하게 계획한다.
- ▲ 친구와 협업하여 설치 작품을 제작한다.

과정 3 함께 이해하고 즐기는 전시회 운영하기



- ▲ 점심시간을 활용하여 전시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작가와 작품 정보를 전시 주제와 연결하여 해설하며 관람자의 이해와 감상을 돕는다.
- ▲ 전시 주제와 관련한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운영한다.



▲ 완성한 작품을 설치하고 친구들과 함께 감상한다.

07 눈에서 마음으로

- ▶ 미술 감상
 - 미술 작품을 보고 느끼며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고 즐기는 활동이다.

▶ 미술 작품과 친해지기

보고 느끼기	선입견이 없는 상태에서 작품을 보고, 첫인상이나 궁금한 점을 적어 본다. 왜 그렇게 느꼈는지 작품 속 요소에서 단서를 찾아본다.
자세히 관찰하기	작품을 자세히 관찰하여 작품에 표현된 내용과 형식을 분석한다.
의미 탐구 (해석)하기	작품 전면에 드러나지 않은 정보를 조사하고 작품의 의미를 탐구한다.
내면화하기	작품을 감상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알고 느낀 부분을 바탕으로 나만의 관점에서 작품의 종합적 의미와 가치를 생각한다.

▶ 작품 분석하기

내용	작품에 표현된 대상과 그들 사이의 관계를 모두 찾아 서술한다.
형식	- 조형 요소와 원리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 어떤 표현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평면(드로잉, 회화, 판화, 전통 회화 등), 입체(조소, 설치, 디자인, 공예 등) - 재료와 기법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었는지 분석한다.

08 보이는 것 너머로

▶ 작품의 의미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

- 상징과 도상으로 주제 해석하기
- 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주제 해석하기
- 작가의 삶으로 주제 해석하기
- 형식 또는 양식의 특징으로 주제 해석하기

부처님 손에 담긴 이야기

- 시무외인: 부처가 중생을 두려움과 고난에서 해소시키는 자비를 뜻한다.
- 여원인: 부처가 중생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덕을 의미한다.
- 지권인: 지권인의 오른손은 불계, 왼손은 중생계를 뜻하며 부처와 중생, 미혹과 깨달음이 결국 하나임을 의미한다.

양식

- 시대나 기법의 특징에 따라 독특하게 구별되는 예술 형식을 뜻한다.
- 르네상스, 바로크, 로코코,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포비슴(아수파), 표현주의, 큐비즘(입체파), 초현실주의, 추상주의, 추상 표현주의, 팝 아트, 미니멀리즘, 극사실주의 등이 있다.

▶ 단독 감상과 비교 감상

- 단독 감상: 하나의 작품에서 보이는 요소와 정보 등을 살피며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이다.
- 비교 감상: 둘 이상의 작품을 함께 놓고 비교, 대조하면서 두드러지는 특징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09 가자! 미술관으로

▶ 미술 작품을 만나는 곳

- 미술관: 문화·예술적 가치가 있는 각종 미술 관련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는 시설이다. 사회·문화·교육 기능을 담당한다.
- 갤러리: 미술 작품의 거래를 목적으로 작품을 전시하는 곳이다. 작품의 가치를 홍보하고 미술 시장에 선보이는 역할을 한다.
- 아트페어: 같은 장소에 다양한 상업 화랑이 모여 대표 작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행사이다.
- 비엔날레: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 전시 행사이다. 동시대 미술의 최신 경향을 알 수 있다.

▶ 미술관 관람 예절

- 전시장에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다.
- 안내 요원의 허가 없이 사진을 촬영하지 않는다.
- 휴대 전화는 진동 혹은 무음으로 설정하고 다른 방문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조용히 관람한다.
- 작품 접근 표시선을 지키고 작품에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



어떤 매너를 의미하는 것일까?

▶ 미술관 사람들이 하는 일

- 작품 수집과 연구
- 전시 기획
-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 작품 보존과 복원
- 전시 공간 디자인, 설치와 홍보

- 미술관의 역할과 특징을 알고 설명할 수 있는가?
- 학교 공간을 전시 공간으로 변화시켜 소통하고 화합하였는가?
-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를 감상할 수 있는가?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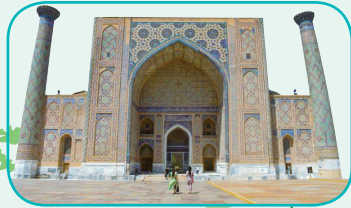
미술의 역사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유구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각 지역의 미술은 사회 내부의 요인뿐만 아니라 외부 문화와 교류하며 역동적으로 변천했다. 다양성을 지닌 세계 미술 문화는 차이와 다름이 존재함으로써 한층 더 가치 있는 인류 공동체의 유산이다. 세계 미술 문화의 시대적·지역적·사회적 맥락과 상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각 지역의 미술을 살펴보자.



선사 시대 거석 유적
스톤헨지 80쪽 참조



1세기 고대 로마 제국 건축
콜로세움 81쪽 참조



15~17세기 중앙아시아 이슬람 건축
마드라사 79쪽 참조



기원전 3세기 고대 중국 무덤 미술
진시황릉 병마용궁 74쪽 참조



20세기 현대 회화
피카소(Picasso, Pablo/에스파냐/1881~1973) 아비뇰의 아가씨들(캔버스에 유채/243.9×233.7cm/1907년) 피카소는 아프리카 조각의 영향을 받아 파리에서 입체주의 회화를 시작하였다.



고대 그리스 조각
밀로의 비너스
(대리석/높이 204cm/
기원전 2세기)
그리스의 밀로 섬에서 발견된 헬레니즘 시기의 대표적 조각이다.



아프리카 조각
유골함 수호신 조각
(나무/높이 51.4cm/
19세기 후반/가봉)



고대 이집트 무덤 미술
피라미드와 스피нк스 80쪽 참조



4세기 인도 불교 조각
부처 두상(석회암/높이 29.2cm/
4~5세기/간다라 지역) 그리스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 양식이라고 불리는 인도의 불교 조각이 출현하였다.



12세기 앙코르 와트 유적
78쪽 참조



8세기 한국(통일 신라) 불교 조각
석굴암 본존불 68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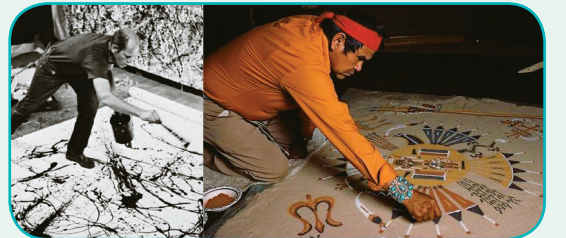
21세기 미국 공공 조각 카푸어(Kapoor, Anish/인도, 영국/1954~) 클라우드 게이트(스테인리스강/높이 10m/2006년)



20세기 미국 팝 아트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Roy/미국/1923~1997)
네... 괜찮아요... (캔버스에 유채/91.4×96.5cm/1964년)



20세기 미국 추상 표현주의 미술 86쪽 폴록의 「가을 리듬」 참조



폴록의 액션 페인팅(좌)은 아메리카 원주민의 모래로 그림을 제작하는 방식(우)의 영향을 받았다.



18~19세기 일본 채색 목판화
76쪽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후지산 36경-가나가와의 거대한 파도」 참조



20세기 미국 대지 미술
스미스(Smithson, Robert/미국/1938~1973) 나선형 방파제(직경 48.4m, 총길이 457.2m/1970년/유타주 그레이트솔트호) 미국의 대지 미술은 아메리카 대륙의 고대 문명 유적의 영향을 받았다.



고대 마야 문명
항로, 왕의 좌상
(도기/높이 80cm/4세기)



고대 파라카스/나스카 문명(기원전 10세기~기원후 7세기경)
페루 남부 드넓은 평원에 새겨진 '나스카 라인'은 최장 285m에 달하는 것도 있어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아야 형태를 알아볼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비행이 가능해진 1920년대에 와서야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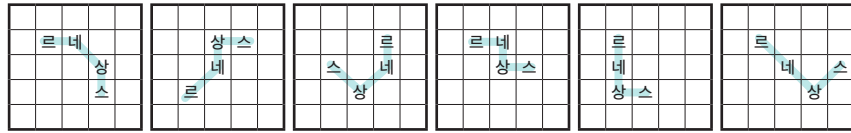
선사 기원전 8000~기원전 2000	고조선 기원전 2333~기원전 108	삼국 기원전 57~기원후 676	가야 기원후 42~562	통일 신라 676~935	발해 698~926	고려 918~1392	조선 1392~1910	근현대 20세기	동시대 21세기												
인류 4대 문명 출현(기원전 3000년경)		진시황의 3중국 통일(기원전 221년)		동로마(비잔틴) 제국의 분리(395년)		몽골 제국(13세기)		비잔틴 제국 멸망(1453년)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1492년)		프랑스 대혁명(1789년)		제1차 세계 대전(1914~1918)		제2차 세계 대전(1939~1945)		인류 달 착륙(1969)		생성형 인공지능(2020년대)	
선사 기원전 25000년경~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기원전 3500년경~ 기원전 800년경	고대 그리스 기원전 8세기~기원전 1세기	고대 로마 기원전 5세기~기원후 4세기	중세 기원후 4~14세기		르네상스 14~16세기	바로크, 로코코 17~18세기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사실주의 19세기 초~중엽	인상주의, 후기 인상주의 19세기 후반	아수파, 입체파 표현주의, 다다이즘 20세기 초	초현실주의, 추상 표현주의 20세기 중반	팝 아트, 미니멀 아트, 개념 미술, 비디오 아트 20세기 후반	생태 미술, 로보틱 아트 21세기 초								

미술 교과서 속 숨은 지식 찾아보기!



퍼즐 푸는 방법

- 1 문제 위의 단원명을 참고하여 교과서에서 문제의 빈칸에 들어갈 답을 찾으세요.
- 2 답을 답안지에서 찾아 모두 표시하세요. 글자는 가로, 세로, 대각선은 물론이고 예시처럼 다양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퍼즐 문제

나와 세계

1.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은 달팽이 겹데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 형태를 응용하여 만들었다.
2. 독일 작가 라이프의 작품 <헤이즐넛 꽃가루>는 ○○○를 사용하여 색채와 향기를 모두 느낄 수 있다.
3. 예술 단체 '저먼 크루'가 멕시코 파추카 시 팔미타스 주택에서 진행한 '파추카 페인츠 잇셀프 프로젝트'는 ○○ ○○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의 ○○○을 낮추고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나의 꿈을 그리다

4. 미디어 TIC 빌딩은 ○○○○○○○○○○○○○○○(ETFE) 소재 필름으로 건물 전체에 필요한 에너지 중 20%를 생산하는 친환경 건축물이다.

우리가 그리는 초록 미래

5. 자연과 하나임을 이해하고 자연과 교감하는 능력을 ○○ ○○○이라고 한다.
6. 남태평양의 섬 투발루는 해수면이 상승하여 국토가 1년에 5mm씩 잠기고 있다. 이와 같이 ○○○○은 기후위기로 삶의 터전을 잃은 혹은 잃을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말한다.
7. 유엔에서 2030년까지 국제 사회의 공동 목표로 채택한 17가지를 ○○○○○○ ○○(SDGs)라고 한다. 이는 경제 성장, 사회 안정과 통합, 환경 보전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8. 훈데르트바서는 '바트 블루마우 호텔'과 같이 식물과 함께하는 건축 설계로 유명하다. 그는 인간이 지은 건물에 나무가 살 수 있는 권리인 ○○ ○○○○을 주장한다.
9. 생태계를 보존하고 더 나아가 생태 시스템을 재생, 복원하려는 예술 장르를 ○○ ○○○이라고 한다.

주변을 둘러봐, 우리를 둘러싼 이미지들

10. 평창 올림픽 픽토그램은 ○○의 자음, 모음이 가진 고유한 직선과 곡선의 특성을 활용하여 만들었다.
11. ○○○ ○○ ○○○ 영상은 루게릭 병 환자를 돕기 위한 릴레이 기부 캠페인이다. 미국에서 시작되어 사회 관계망 서비스 매체로 전 세계에 퍼져 많은 사람의 동참을 유도했다.
12. 가상과 현실 세계가 결합한 새로운 디지털 환경을 의미하는 용어인 ○○○○는 '더 높은, 초월한'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 우주'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이다.
13.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복사하거나 바꿀 수 없는 ○○○ ○○○이다.
14.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제작된 미국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 ○○○은 자유와 희망을 상징한다.

경계를 넘어선 미술

15. 똑같은 모양을 이용하여 평면이나 공간을 빈틈과 겹치는 부분 없이 채우는 방법인 ○○○○○은 가구, 타일, 포장지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16. 감광 재료에 물체를 얹고 빛을 쏘여 추상 사진을 찍는 방법인 ○○○○○은 작가 만 레이가 개발한 표현 기법이다.
17. 펜들럼 페인팅은 방향을 변경하며 같은 경로를 왕복하는 ○○ ○○을 이용하여 기하학적 작품을 제작하는 기법이다.
18. 오스트리아 빈 분리파 전시관에 있는 클림트의 ○○○ 프리즈는 ○○○의 합창 교향곡을 테마로 제작한 벽화이다.
19. 화가 밀레이의 작품 <오필리아>는 ○○○○○의 희곡 『햄릿』의 한 장면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미술과 테크놀로지의 만남

20. 드리프트 스튜디오는 ○○을 이용하여 손상되었거나 미완성 형태인 건물을 재구성하는 설치 예술 작업을 진행한다.
21. 세계 최초의 휴머노이드 로봇 ○○○은 인공지능 알고리즘, 카메라, 로봇 팔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린다.

보이는 것 너머로

22. 화가 베로네세의 작품 <수태 고지>에 숨겨진 종교적 도상 중 백합을 든 천사는 ○○을 상징한다.
23. 작가 미켈란젤로와 이용백의 작품에 붙은 이름인 ○○○은 이탈리아어로 '동정, 연민'을 뜻한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안고 슬퍼하는 장면을 표현하는 작품에서 주로 사용했다.
24. 부채나 보살의 깨달음을 손 모양으로 표현한 것을 ○○이라고 한다.

가자! 미술관으로

25. 2년마다 열리는 국제 미술 전시 행사를 ○○○○라고 한다.
26.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관람객에게 전시물과 관련한 해설을 제공하고 안내하는 사람을 ○○○○라고 한다.

한국 미술의 숨결

27.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에 걸쳐 바위에 새겨진 ○○○의 각종 동물과 사냥 장면은 풍요로운 포획을 염원했음을 알 수 있다.
28. 발해 수도였던 상경의 절터에서 출토된 ○○은 재앙을 막는 의미를 담아 지붕의 용마루 양쪽 끝에 부착했던 장식 기와이다.
29. 고려 시대에는 회화, 조각, 공예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화려하고 귀족적인 ○○ 미술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30. 조선 전기 최고의 시, 서, 화가 집약된 걸작인 ○○○○○은 안평 대군이 꿈에 문인들과 도원을 거닐며 본 광경을 안견에게 그리게 한 작품이다.
31. ○○○은 다양한 색채, 구상적인 묘사를 배제하고 한 가지 또는 비슷한 색조를 사용하여 추상적인 화면을 구성한 회화이다.

동양 미술의 여정

32. 중국 원 제국 시기에는 조맹부의 영향 아래 오진, 황공망, 예찬, 왕몽 등 '○○○○'라 불리는 문인화가들이 그린 산수화가 유행하였다.
33. 에도 시대에 유행한 ○○○○은 신승 상인들의 도시 문화와 서민의 일상 풍속을 그린 다색 목판화이다.
34. 인도 쿠산 시대 간다라 지역에서 등장한 간다라 불상은 고대 그리스의 ○○○○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서양 미술의 모험

35. 화가 라파엘로의 작품 <아테네 학당>은 기하학에 기반을 둔 ○○ ○○○을 활용하여 그리스 철학자의 사상을 상징적으로 담아냈다.
36. 화가 피카소가 브라크와 함께 시작한 ○○○○ 미술은 여러 시점에서 바라본 형태와 공간을 다시 조합해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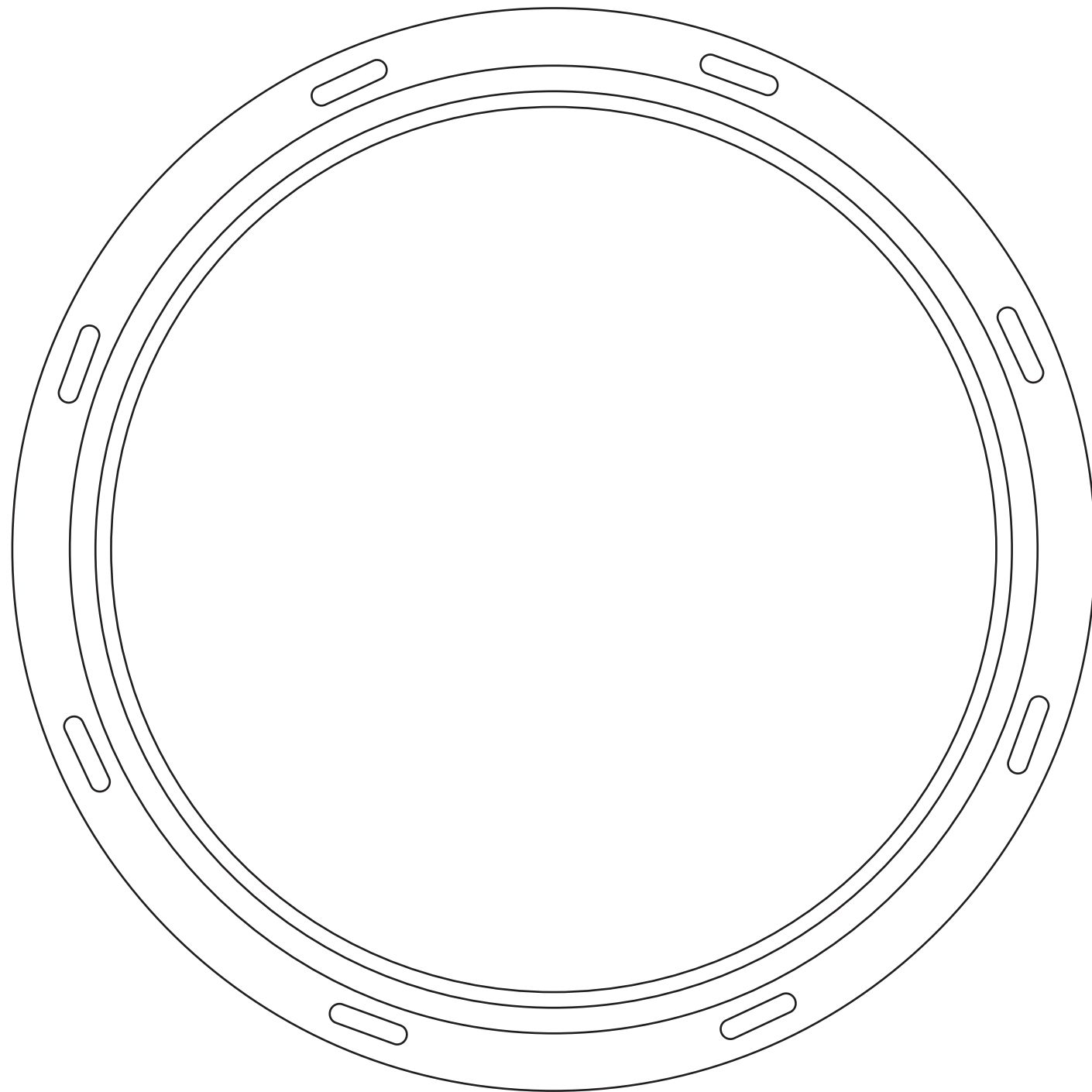
퍼즐 답지

콜로수움	관음도	월성수	수학털	에러증명	큐틸빙	화레렌	색이테	터단식	지오데	꽃망울	공가루	예면나	도나무	회플
수인고	도심포	성수지	털버트	증명위	팅서커	렌대향	이테트로	단식라	데돔작	울저권	루대나	나지목	무예술	플팸
구마순	라대나	디오나	트란전	위다칠	도기코	스트코	로바흐	플루팡	돔작오	권로에	스크림	지목태	예술미	세입자
결경산	무진아	분사기	선청버	로킷굿	철탄닝	린지보	라파엘	색동헬	작오방	파렌드	사날딩	생트엔	미피카	권태메
로봇성	수미령	이화치	스몽파	모유린	도원도	지보탐	엘전정	동헬파	방틸옷	렌드코	날딩인	한글랜	리놀라	롱큐
실테스	크셀레	즈로드	프요에	우키자	원도타	지역오	정열주	즈롬화	틸옷레	코원오	인그환	원시무	드황울	금죄범
이션고	트리트	드상투	감시퍼	청원근	도타지	마할훈	열주웰	음민초	레니여	원오몬	각화도	정터르	티화인	범과양
딕동드	운라미	트니자	진지권	법현인	베토벤	데증에	스세르	민초단	니여이	원오몬	각화도	정터르	티화인	범과양
료안지	비잔감	홀로틴	드그래	론래원	강피실	에인포	르타미	초단익	레니여	원오몬	각화도	정터르	티화인	범과양
생위태	성태성	수에량	성탄소	티다립	그래성	바대가	세메바	단익트	레니여	원오몬	각화도	정터르	티화인	범과양
관음도	월성수	수학털	에러증명	큐틸빙	화레렌	색이테	터단식	지오데	꽃망울	공가루	예면나	도나무	회플	

맨홀 뚜껑 디자인 (교과서 32쪽)

지역의 특징을 보여 주는 맨홀 뚜껑을 디자인해 보자!

지역 이름	
지역 특징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마스코트, 특산물 등



연구 및 집필 위원

* 대표 연구 및 집필 위원

최정아*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과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산업디자인과 졸업(석사)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디자인학과 졸업(박사)

신은정

(현) 버들중학교 교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시각디자인학과 졸업(학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석사)

손나리

(현) 김해외국어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학사)

정은영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인문대학 영문학과 졸업(학사)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예술학과 졸업(학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미술사학과 졸업(석사)
미국 일리노이주립대학교 미술사학과 졸업(박사)

강지희

(현) 소사중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학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석사)

윤수영

(현) 세종예술고등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학사)

윤기연

(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 졸업(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미술학과 졸업(박사)

고재령

(현) 충남삼성고등학교 교사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디자인공학과 졸업(학사)
한국교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교육과 졸업(석사)

윤동식

(현) 강릉중학교 교사
한국교원대학교 미술교육과 졸업(학사)

집필 단위

01단원_강지희 / 02-03단원_손나리 / 04단원_고재령 / 05단원_신은정 / 06단원_고재령 / 07-09단원_윤수영 / 10-12단원_정은영



경기도교육청인정도서심의회 위원

* 인정도서심의회 심의위원장

김철민*(경기창조고등학교) 김진아(신성중학교) 박지영(창용중학교) 안상은(여주세정중학교)
조윤경(광희고등학교) 김양식(안산동산고등학교) 조영식(전 안남고등학교)



편집 및 디자인 기관

편집_ 안효빈, 이예제, 정윤조 디자인_ 아이디알크리에이티브 조판_ 맥서림
삽화_ 김중재, 이경민, 고성규, 이세미, 장덕현 사진_ 로이스튜디오

중학교 미술 ①

교육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교육청 교육감이 2024년 8월 28일 인정 승인을 하였음.

2025. 03. 01. 초판 발행 정가 11,800원
지은이 최정아 외 8인
발행인 (주)아침나라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214-12 3층)
인쇄인 (주)타라티피에스 (경기도 파주시 상지석길 245)

·이 교과서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의견이 있는 분은 교육부와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운영하는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웹사이트: <http://www.textbook114.com> 또는 <http://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저작권협회(02-2608-2800, www.kolaa.kr)에서 저작권재산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 (주)아침나라 교과서 개발부 미술팀 / 전화 (031) 955-6333 / 전송 (031) 955-6335
공급 업무 대행 |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10881)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신촌동 734-1)
개별 구입 문의 | 홈페이지 주소 www.ktbook.com 전화 031-956-8581~4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
ISBN | 978-89-5587-253-8